

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10.16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- [현대차그룹, 인도서 수소 사업 확대... 장재훈 "버스·트럭 넘어 기관차까지"](#) ("26.10.15, 조선일보")
 - 현대자동차그룹은 인도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인프라를 활용해 모빌리티를 시작으로 산업·에너지 분야까지 수소 사업을 확대할 계획임
 - 인도 중앙·지방정부와 협력해 수소 활용 범위를 승용차에서 버스·트럭·기관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확대하고, 수소 사업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임
 - 현대차그룹은 인도에 별도 투자 법인인 'HMG 인디아'를 설립해 AI·에너지 등 신사업 투자를 추진하고, 현지 연구개발 및 계열사 투자도 확대할 계획임
 - 현대차그룹은 2032년까지 인도에 155억 달러를 투자하며, 약 60%는 생산시설 개선·증설, 약 20%는 AI·벤처투자 등 신산업 진출, 나머지는 R&D 등에 투입할 계획임
- [이화여대 "폐자원 수소, 생산 경로 따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 달라"](#) ("26.10.15, 뉴시스")
 - 이화여대 최원재 교수 연구팀은 폐자원 기반 수소 생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폐자원의 기존 처리 방식과 수소 생산 경로, 최종 활용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

- 연구팀은 가스화·열분해·바이오가스 활용 등 8개 수소 생산 경로를 분석한 결과, 열 생산보다 전력 생산에 사용되던 폐자원을 수소 생산에 활용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함
- 탄소포집·저장(CCS)을 결합한 일부 생산 경로는 수입 천연가스 기반 수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었으며,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청정수소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
- 일반수소 발전시장에 CCUS 지표 신설…환경성 평가 강화
(’26.10.15, 에너지경제)
- 전력거래소는 2026년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평가체계에 탄소포집·활용·저장(CCUS) 관련 지표 8점을 신설하고, 이산화탄소 포집 비율과 활용·저장 계획 등을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성 평가를 강화할 계획임
- 올해 일반수소 발전시장 입찰 물량은 지난해 1,300GWh 대비 약 28% 감소한 930GWh로 확정됐으며, 시장을 유지하되 청정수소 중심의 정책 전환에 맞춰 탄소 감축을 유도할 방침임
- 입찰 참여 단계에서 발전사업허가 사전 취득 요건과 허가 진척도 평가를 삭제해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,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할 계획임
- 김해 관광객, 친환경 수소버스 타고 명소 곳곳 누빈다
(’26.10.15, 부산일보)
- 경남 김해시는 노후 시티투어버스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수소버스로 교체함
- 신규 수소버스 외관은 김해 대표 관광지와 지역 캐릭터로 장식하고, 시티투어 로고송과 홍보영상을 제작해 관광 홍보를 강화함
- 김해시티투어는 4개 테마 코스로 운영되며,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고 10명 이상이 출발 5일 전 예약 시 이용 가능함

□ 해외

- [EU] Hydrogen Europe, 회원국별 RED III 이행 격차로 그린수소 시장·인프라 구축 지연 지적 ('26.10.14, Hydrogen Insight)
 - Hydrogen Europe는 회원국별 RED III 국내법 전환이 불균일·불일관해 그린수소 및 수소 기반 연료 시장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함
 - '23년 발효된 RED III는 '30년까지 산업·수송부문 RFNBO 사용목표를 설정했으나, 회원국별 법제화 지연으로 시장 예측가능성과 투자 결정이 저해되고 있다고 평가함
 - 독일·스페인이 RED III 이행을 선도하는 반면, 프랑스·폴란드·벨기에 등은 아직 완전한 국내법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으며, 스웨덴·오스트리아·덴마크 등도 이행 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함
 - 독일은 '26년 수송부문 RFNBO 0.1% 의무사용을 도입하고 '40년까지 10%로 단계적 확대하며, 미이행 시 재정적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
 - 스페인도 올해 6월 '40년까지 연도별 RFNBO 수송부문 의무목표를 확정해 RED III 이행 선도국으로 평가받음
 - Hydrogen Europe는 회원국별 제도 차이로 EU 단일 RFNBO 시장 형성이 저해되고 있으며, 프랑스·폴란드·벨기에 등의 이행 지연이 시장 확실성과 투자 결정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함
 - RED III 이행 지연은 수소 인프라·배관망 구축에도 영향을 미쳐, '30년까지 계획된 수소 인프라의 약 3분의 1만 구축될 전망이라고 분석함
 - 유럽의 수소 배관망 구축계획은 총 약 3만8,000km에 달하나, 대부분 '30년까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당초 계획 대비 구축 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

○ [호주] 남호주주, 중단된 그린수소 사업용 수소 대응 가스터빈 보관에 수백만 달러 지출 ('26.10.14, Hydrogen Insight)

- 남호주주 정부는 중단된 그린수소 발전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구매한 수소 대응 가스터빈 4기를 매각할 때까지 보관·유지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음
- 남호주주는 '23년 와이엘라 지역에 수소 발전·저장·수전해 설비를 통합한 사업을 추진하며 5억9,300만 호주달러(약 5,600억 원)의 보조금 투입을 결정함
- '25년 초 사업을 연기하고 관련 예산을 와이엘라 제철소 지원에 전환했으며, 같은 해 수소전력청도 해체하고 관련 자산·업무를 에너지광업부로 이관함
- 그러나 정부는 GE Vernova와 체결한 2억5,000만 호주달러(약 2,600억 원) 규모의 터빈 4기 구매계약과 관련 전력 인프라 건설계약에 계속 구속되고 있음
-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1억8,000만 호주달러(약 1,900억 원)를 구매계약에 지출했으며, 이미 인도된 터빈의 보관·유지관리에도 180만 호주달러(약 19억 원)를 지출함
- 터빈은 각 50MW급 4기로 구성되며, 잔여 부품은 '27년 초까지 추가 인도될 예정임
- 남호주주 정부는 구매비용을 회수하고 해당 설비가 주 내에 설치·운영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